

## 기고



박재우

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

기후변화 시대, 배수개선사업으로  
안전한 농업 기반을 만든다

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.

이러한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. 농업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는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극한호우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.

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관내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장암지구와 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장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6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기존 배수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농경지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준공을 위해 공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주요 사업내용은 배수문 확장 및 정비 4개소와 배수로 정비 등으로, 집중호우 시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.

또한, 구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, 대양리 일대에 상습 침수로 어

려움을 겪어온 농경지의 배수능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.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추진된다.

주요 사업 내용은 배수장 1개소 설치와 8.4ha 규모의 매립 등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경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. 배수장이 설치되면 집중호우 시에도 신속한 배수가 가능해져 농경지 침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배수개선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사업이다. 농경지 침수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, 배수시설 확충과 정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.

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업 기반시설 정비와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

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극한 가뭄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. 2025년에는 강릉지역 가뭄으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, 충남지역은 여름철 극한 집중호우로 가옥, 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많은 피해를 주었다.

농업 현장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상황을 겪을 때 집중호우는 가뭄이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한다.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저지대 농경지는 짧은 시간의 강우에도 배수능력이 없어 물 폭탄을 쏟아붓는 것과 같이 손 쓸틈없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한순간에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농가에 막대